

방글라데시 노무여건 변화와 대응

(2011.11.10.)

[목차]

요약	1
I. 방글라데시 경제 및 FDI 유입동향	2
II. 우리 기업의 방글라데시 진출현황	4
III. 방글라데시 노무환경 변화 동향	6
IV. 우리 기업의 대응방향	15

작성: 다카무역관 김삼식 관장(sk7192@kotra.or.kr)

편집: 아시아팀 박민준 과장(minjoon@kotra.or.kr)

아시아팀 김욱진 사원(kimwookjin@kotra.or.kr)

감수: 아시아팀 황의태 팀장(hwanget@kotra.or.kr)

요 약

1. 방글라데시 경제 및 우리 기업 진출현황

- 최근 경제성장 가속화: '12(회계연도: 11.7.~12.6.) 7% 전망
- 인플레이션, 재정적자, 경상수지 적자 반전 등이 위협요인
- 'Post-China'로 투자진출 기회 좋으나, 투자환경 미비가 걸림돌
- 우리 기업은 섬유·의류 부문을 중심으로 150여개사 진출

2. 방글라데시 노무환경 변화와 전망

- 노동법 개정작업 통해 노동자 친화적으로 변화 예상
- 국제 노동기관과 해외 바이어로부터 근로조건 개선 압력 증대
- 정부 당국의 법질서 준수 강조: 산업경찰제 도입
- 노동자 의식 제고, 국제사회의 압박 등으로 노동계 기대가 상승하는 반면, 사업주의 對노동계 인식은 별로 변화가 없어 충돌 가능성 상존

3. 우리 기업의 대응방향

(단기적 대응방향)

- 현지 노동법규 준수는 기본중의 기본
- 경찰 등 공권력과 긴밀한 관계 유지
- 외부세력 산업현장 침투 방지
- 임금과 노동생산성 증가율 연계로 근로의욕 고취

(중장기 대응방향)

- 노동조합 일반화를 가정한 노사관계 계획수립 및 구축
- CSR 활동 등을 통한 '좋은 기업' 이미지 확보

I

방글라데시 경제 및 FDI 유입동향

□ **최근 경제동향**

○ **최근 경제성장 가속화**

- 2012년(FY 2012, 회계연도 2011.7~2012.6), 7% 성장 전망
- 수출호조 지속과 내수 확대가 성장 동력
- 물가 급등, 재정적자 확대, 경상수지 적자 반전 등이 거시경제에 위협 요인으로 대두

최근 방글라데시 경제성장 추이 및 전망

연 도	FY 2008	FY 2009	FY 2010	FY 2011	FY 2012
GDP 성장률(%)	6.2	5.7	6.1	6.7	7.0

자료원: 'Asian Development Outlook 2011'(2011.9), 아시아개발은행(ADB)

○ **FY 2012, 분야별 동향 및 전망**

- 확장적 재정정책: 세출 230억 달러로 사상 최대(25.8% 증가)
 - 에너지/전력, 수송/교통, 농촌개발 등 인프라 개선을 위한 투자 강화
- 인플레이션 억제 주력: 정부 목표 7.5%이나 달성 가능성 희박
 - 중앙은행, 기준금리 인상 및 시중은행에 신용 증가 억제 요청
- 수출입은 전년대비 둔화 전망
 - 수출, 전년 41.7% 증가에서 FY 2012 15% 증가
 - 수입, 전년 41.8% 증가에서 FY 2012 20% 증가
- 경상수지, 7년만에 적자 반전
 - 무역적자 확대와 해외근로자 송금 둔화의 영향
 - 지난 9월, IMF에 10억 달러 차관 요청
- 최근 유럽 재정위기는 방글라데시 경제에도 타격
 - EU는 방글라데시 주력 수출품인 의류의 최대 수출시장

□ 외국인직접투자(FDI) 유입동향

○ FDI 유입은 꾸준한 증가세이나 규모 미흡

- 2008년 사상처음 10억 달러 돌파
- 이후 세계경기침체로 감소했다가 2010년 다시 증가로 전환
- 2010년말 기준 FDI 유치누계(잔존투자)는 60억 7,892만 달러

최근 외국인직접투자(FDI) 유입 추이

연 도	FY 2009	FY 2010	FY 2011	FY 2012
FDI 유입(백만 달러)	666	1,086	700	913

자료원: Bangladesh Bank(중앙은행)

○ FDI 집중 분야는 섬유·의류산업

- 투자가 가장 많이 들어온 업종은 제조업
- 제조업 중 섬유·의류업에 투자 집중: 전체 FDI의 20% 이상
- 최근 투자추세는 제조업에서 자원개발, 금융, 통신 등으로 확산

업종별 외국인직접투자 유입 현황

(단위: US\$ 백만, %)

업종	연도	2009	2010	투자누계	
				금액	비중(%)
농수산		11.8	13.6	68.6	1.1
전 력		30.9	38.5	309.9	5.1
가스 및 석유		20.3	53.6	1,249.6	20.6
제조업		211.3	238.8	2,140.5	35.3
- 식품		24.5	12.8	230.2	3.8
- 섬유·의류		134.0	145.2	1,284.3	21.2
- 금속 및 기계		1.3	3.1	103.1	1.7
- 비료		9.8	4.7	116.9	1.9
- 시멘트		9.4	9.2	123.4	2.0
은행업		142.6	163.1	1,023.7	16.9
통 신		250.1	359.8	955.8	15.7
총 계		700.2	913.3	6,072.1	100.0

자료원: Bangladesh Bank

II

우리 기업의 방글라데시 진출 현황

□ 對방글라데시 투자 동향

○ 한국은 제조업 분야 최대 투자국 중 하나

- 1994년 ~ 1999년 기간 對방글라데시 투자 집중
- 1997년부터 방글라데시 정부의 단순가공 분야 투자 제한정책 시작
- 2000년대 들어 투자 부진, 중국 내 임금급등으로 2010년 이후 증가세
- 한국은 투자액 기준 7위 투자국, 제조업 분야에서는 일본 등과 최대 투자국 자리를 놓고 경합 중

對방글라데시 직접투자 현황

(단위: US\$ 천)

연도	신고건수	신규법인수	신고금액	투자금액
1990 이전	25	10	8,076	3,207
1991	7	1	7,875	3,055
1992	10	7	5,212	4,574
1993	14	5	10,204	1,555
1994	37	21	23,646	25,468
1995	24	10	57,361	11,613
1996	53	32	94,785	29,908
1997	29	14	34,793	11,371
1998	18	3	62,552	19,734
1999	15	5	31,228	36,861
2000	10	5	3,172	1,036
2001	24	5	30,859	22,202
2002	3	1	1,043	1,364
2003	13	4	6,719	2,177
2004	7	2	3,488	2,991
2005	8	6	5,546	2,497
2006	15	12	3,204	1,088
2007	45	22	25,128	11,050
2008	34	10	9,332	7,324
2009	32	10	5,084	5,671
2010	57	12	119,378	44,804
2011(1~3월)	10	3	4,884	3,890
합 계	490	200	553,570	253,436

자료원: 한국수출입은행

○ 우리 기업의 업종별 투자 현황

- 제조업(67.7%)이 주력이며, 다음으로 광업(15.6%), 금융업(9.2%), 부동산·임대업(4%), 도소매업(2.4%) 순
- 제조업 중에서는 의류(57.5%), 의류外 섬유제품(21.9%), 가죽·가방·신발(6.3%) 등 경공업에 집중
- 진출기업 수는 150여개사이며, 섬유·의류업체가 주종
- 최근 섬유·의류 일변도에서 벗어나 인쇄, 포장, 가죽제품, IT, 건설, R&D센터 등으로 진출영역이 넓어지는 추세

○ 對방글라데시 투자진출 전망

- 최근 중국 내 임금 급등에 따라 'Post-China' 투자대상국으로 저임금의 방글라데시가 떠오르는 상황
- 그러나 방글라데시는 이러한 기회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해 FDI 유치실적이 지지부진하며, 우리 기업의 투자진출도 큰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
- 이는 최근 방글라데시의 투자환경이 우호적이지 않기 때문
 - 현지 투자진출 저해요인으로는 심각한 전력난, 투자부지 확보의 어려움, 낮은 노동생산성, 만연한 관료주의와 부정부패 등을 꼽을 수 있음

※ 방글라데시 내 의류산업(Ready Made Garment)의 위상

- 최대 수출산업으로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0%를 상회
 - 2010 회계연도 수출액 179억 달러
- 중국, 터키에 이은 세계 3위 의류 수출국(2009년 기준)
- 직접 고용인력 300만명 이상
- 외국인직접투자를 가장 많이 유치한 산업

III

방글라데시 노무환경 변화 동향

가. 노동시장 및 노무환경

□ 노동력 가용성(availability) 및 노동생산성

- 1억6천만 인구의 방글라데시는 노동력이 풍부
 - 현재 방글라데시 내 노동인구는 약 8천만 명으로 추정
 - 여성 노동력은 1/4을 차지하는데 의류봉제 및 경공업 확장에 따라 늘어나는 추세
 - 젊은 노동력이 풍부하다는 것도 방글라데시의 장점
 - 중위연령(median age): 방글라데시 25세, 캄보디아 22세, 인도 25세, 인도네시아 28세, 베트남 29세, 중국 34세 (출처: KPMG International)
- 노동력의 질적 수준은 미흡
 - 풍부한 노동력은 최대 자산이나, 노동력 대부분은 기술이나 숙련도 면에서 질적으로 부족
 - 노동생산성 성장률은 2003년 1.9%에서 2007년 4.8%로 개선되었으나, 인도(7.6%), 베트남(5.7%)에 비하면 크게 낮은 실정
 - 기술 있는 숙련노동자, 특히, 중간관리급이 부족하며, 국가 직업훈련소가 외국 제조업체와 내수기업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태

□ 임금 수준

- 동·서남아에서 인건비가 가장 저렴
 - 지난해 11월 1일부 최저임금 대폭 인상: 비숙련 생산보조원(Helper)의 경우 수출가공공단(EPZ)은 2,100다카(30달러)에서 3,350다카(48달러)로 60%, EPZ 외 지역은 1,662다카(24달러)에서 3,000다카(43달러)로 80% 인상

- 수출가공공단(EPZ: Export Processing Zone)은 외국 기업 유치를 통한 수출 확대를 목적으로 정부가 조성한 공단으로 기본 인프라가 갖춰져 있고, 조세 감면 등 혜택이 제공되는데 현재 치타공, 다카 등지에 8개 운영
-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도 불구하고, 방글라데시는 동서남아에서 임금수준이 가장 낮은 나라 중 하나

아시아 주요국 대표도시의 생산직 임금 수준

(단위: US\$)

도시(국가)	월 임금	도시(국가)	월 임금
상하이(중국)	311	양곤(미얀마)	41
광저우(중국)	281	프놈펜(캄보디아)	101
방콕(태국)	263	뉴델리(인도)	294
자카르타(인도네시아)	186	카라치(파키스탄)	174
마닐라(필리핀)	236	콜롬보(스리랑카)	120
호치민(베트남)	114	다카(방글라데시)	54

자료원: JETRO, 투자관련비용 비교조사(2011.7)

□ 노동법규 및 노동조합 현황

- 법·제도 자체는 국제기준에 근접
 - 방글라데시는 국제노동기구(ILO) 회원국이며, ILO의 33개 협약 (convention)에 서명
 - 현 노동법(Bangladesh Labor Act, 2006)은 노조결성과 단체교섭과 같은 노동자의 기본권리 보장
 - 강제노동과 아동노동(14세 이하)은 불법
 - 노조원의 3/4이 지지할 경우 파업 가능
 - 그러나 노동자 측은 기존 노동법규는 사업주의 이익을 옹호하며, 노동자에 비우호적이라고 지적
 - 예컨대 노조가 출범하기 위해서는 사업장 내 노동자의 30%가 노조원이 되어야 한다는 조항 등은 국제기준과 맞지 않다고 주장
 - 노동법은 EPZ 안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반쪽짜리 법이라는 점이 문제

- 방글라데시 정부는 1986년 이후 EPZ를 국가노동법의 적용범위에서 제외해 왔음. 대신 2004년부터 EPZ 내에서는 ‘Workers Association & Industrial Relations Act’라는 별도 법을 적용 중
- 노동조합은 아직 일반화되지 않은 상황
 - 노조는 기업별, 산업별, 전국 단위 등 3단계 구조로 형성
 - 현재 EPZ에서 노동조합 설립은 가능하나, 실제로 노조는 거의 없으며, 대신 ‘EPZ Workers Association & Industrial Relations Act(2004, 이하 WAIR법)’에 따른 Workers Association(WA)이란 유사조직이 설립되어 있는 상황
 - 방글라데시 정부는 EPZ를 노동법 적용범위에서 제외하는 한편 국제사회에 EPZ에는 노조가 없다고 홍보했는데, 이는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를 통한 수출 진흥을 위한 것
 - 대신 EPZ에는 매년 10%의 임금 인상, 외부 보다 높은 임금과 복리수준 등 인센티브 제공
 - 또 의류분야 등에서 아직도 ‘노동조합주의(Trade Unionism)’에 대한 논란이 있는 등 노조가 일반화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움

방글라데시의 노동조합 등록 현황

구 분	노조/연맹 수	소속 노조 수	노조원 수
전국단위 연맹	32	1,264	1,263,665
산업별 연맹	108	721	640,221
의류부문 연맹	15	80	50,149
기업별 노조	5,242	-	2,069,614

자료원: Bangladesh Directorate of Labour(노동부)

나. 2010년 말 노동자 소요 발생 후 노사관계 동향

□ 2010년 말 노동자 소요 원인파 진행경과

- 최저임금 인상의 실행 과정에서 노사간 이견과 마찰이 원인
 - 2010년 11월 1일부로 의류부문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는 '신임금체계' 발효(아래 표 참고)

EPZ 내 의류부문 최저임금 인상 현황(2010.11.1. 이후)

노동자 직급	인상 전	인상 후	증가율
Apprentice(수습)	US\$ 20	US\$ 39	95%
Helper(생산보조)	US\$ 30	US\$ 48	60%
Junior Operator	US\$ 35	US\$ 55	57%
Operator	US\$ 45	US\$ 61	35%
Senior Operator	US\$ 50	US\$ 67	34%
High Skilled	US\$ 58	US\$ 109	88%

자료원: 방글라데시 수출가공공단관리청(BEPZA)

- 주) 1. EPZ에 대한 직급별 최저임금이며, EPZ 외부는 8개직급으로 구분, 별도로 적용
 2. 최저임금은 기본급(60%) + 주택보조(30%) + 의료보조(10%)로 구성

- 상기 체계에 따라 사업장별 임금협상 과정에서 마찰과 이견이 많았고, 12월 들어 대규모 노사분규로 확대
- 같은 직급이지만 고연차·고임금인 노동자들의 인상폭이 크지 않는데 따른 상대적 박탈감 등이 불만의 원인
- 복잡한 신임금체계에 대한 노사의 이해 부족과 의견 차이가 소요사태의 근본 원인이었고, 여기에 외부선동 등이 사태를 증폭
 - 노동자 난동으로 일시 공장폐쇄를 했던 영원무역은 “소요는 경력 근로자(이미 최저임금 이상을 받는 근로자)의 최저임금 조정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기대 불만족을 이용한 외부 세력의 개입에 따른 결과”라고 설명 (출처: 매일경제, 2010.12.14.)

- 2010년 12월의 노동자 소요사태 진행경과
 - 12월 초, 다카 수출가공공단(DEPZ)내 High-Tech Sportswear사(영원 계열)에서 노동자 무단결근으로 생산이 중단되고 직장폐쇄에 돌입하였으며, 그 외 DEPZ와 근처 4개 업체에서도 소요 발생
 - 12.11.(토), 대표적 투자진출기업 영원무역에서 소요가 발생하여 노동자들이 기계, 사무기기 등을 부수고 현지인 관리자 2명 폭행, 그 결과 영원은 치타공EPZ과 다카EPZ 내 11개 공장 폐쇄
 - 같은 날, 다카 근교의 나라얀간즈(Narayanganj)와 가지푸르(Gazipur)에 위치한 의류공장 3~4곳(非한국계 기업)에서도 노사 충돌로 최소 25명 부상
 - 12.12.(일), 소요가 확대되어 치타공에서 경찰력과 노동자 충돌로 인해 4명 사망, 수십여명이 부상당했고 치타공EPZ 입주 대부분의 의류공장들이 영업 중단
 - 12.13(월), 소요가 다소 진정되어 치타공EPZ 내 다수 공장 조업 재개
 - 12.14(화), 영원무역을 비롯해 치타공EPZ 입주업체 대부분이 조업을 재개하는 등 정상화

□ 2011년 노사관계 현황

- 최근 수년간 노사분규 발생건수 증가세
 - 2011년 1~7월 중 발생한 건수가 2010년 연간 건수를 초과

최근 수년간 노사분규 발생 추이

2008년	2009년	2010년	2011년(1~7월)
90건	122건	148건	188건

자료원: 방글라데시 노동부

- 주) 1. '노사분규'란 노동자 소요로 인해 생산이 중단된 사례를 말함
- 2. EPZ 이외 지역에서 발생한 분규 기준

- 2011년은 전년의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같은 큰 이슈가 없고 비교적 평온한 해였는데도 분규 건수가 많은 것은 연초 신임금체계의 적용과정에서 발생한 잦은 노사마찰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
- 노사분규의 주요 원인(2011년 1~7월)
 - 임금 문제: 약 50%(신임금체계 적용, 임금 체불, 임금 인상 등)
 - 노동자 해고, 처벌조치 등 : 20%
 - 노동자 사망, 화재 등 안전문제 : 20%
 - 근로조건 관련 관리자와의 충돌 : 10~15%

다. 현지 노무환경의 변화

□ 노동법 개정 움직임

- 노동부의 노동법 개정관련 입장
 - 지난 5월초, 노동장관(Mr. Mosharraf)은 모든 이해관계자와 협의를 거쳐 현 노동법(BLA 2006)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언급
 - 의류업 분야의 노동조합주의(Trade Unionism)와 관련, “대부분의 나라에 노조가 있으며 우리도 산업부문에서 노조 이해도를 높여야 한다”고 노조를 옹호하는 듯한 입장 표명
- 업계의 노동법 개정에 대한 입장
 - 의류업계 최대 이익단체인 의류수출·제조업자협회(BGMEA)는 의류수출 확대를 위해서 노조를 허용하지 말고, 대신 복지위원회 또는 WA(Workers Association)로 가야 한다는 입장
 - 정부가 노동법 개정과정에서 의류부문에 노조를 용인하는 것에 대해 우려

- 노동법 개정 방향(2011년 말까지 계획)
 - 현지 노동자들의 의식 향상, 노동계 및 국제노동기관의 요구 등을 감안하면 노동자 권익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 예상
 - 그러나 노동조합에 대한 사업주들의 부정적 인식이 강해 노조에 대한 규정이 어떻게 될지 불투명
 - 단, 노동부 관계자는 당국이 정치적으로 연계된 노동조합의 폐해를 인식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노조에서 정치색 제거할 것을 시사
 - 노동법원(Labour Court) 관련, 현재 7개에서 수를 늘리고 노동자가 변호사를 통해 소송할 수 있게 하여 소위 '노동 지도자'의 입김을 낮출 예정

□ 국제사회의 압력 증대

- 국제노동기구(ILO)의 요구
 - 국가 노동법(BLA 2006)과 근로감독 체계가 EPZ 안에서도 동등히 적용되고, 근로감독(노동법 준수여부 감독)이 강화되어야 함
 - WAIR법(2004)을 개정하여 ILO 협약 87번 및 98번과 부합 필요
 - 87번은 단체결사의 자유와 단체조직을 위한 권리보호에 관한 협약이며, 98번은 단체 조직과 단체협상 권리에 관한 협약
 - 근로감독의 책임자로서 '카운슬러(Counselor)' 라는 용어는 역할과 기능상 모호하므로 이를 '감독관(Inspector)'으로 변경하는 것이 적절
 - EPZ에서도 국가 근로조사단(Labour Inspectorate)의 통제를 받는 자격 있는 근로감독 부서를 설립해야 함
 - 방글라데시는 ILO 근로감독 협약(81번)의 서명국인데 동 협약은 국가가 제정한 노동법규가 제대로 준수되는지 감독하는 근로조사단을 운영토록 규정
- 미국, 유럽 등의 유력바이어의 압력
 - 선진국 의류 바이어들은 제3세계에서의 노동착취 기업이란 비난을 피하기 위해 현지 납품공장의 근로조건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추세

- 유력 바이어들은 급여, 수당, 복리 등 근로조건 전반에 걸쳐 높은 기준을 설정하고, 직접 또는 대행기관을 통해 정기적으로 점검 중

□ 산업안전에 대한 의식 강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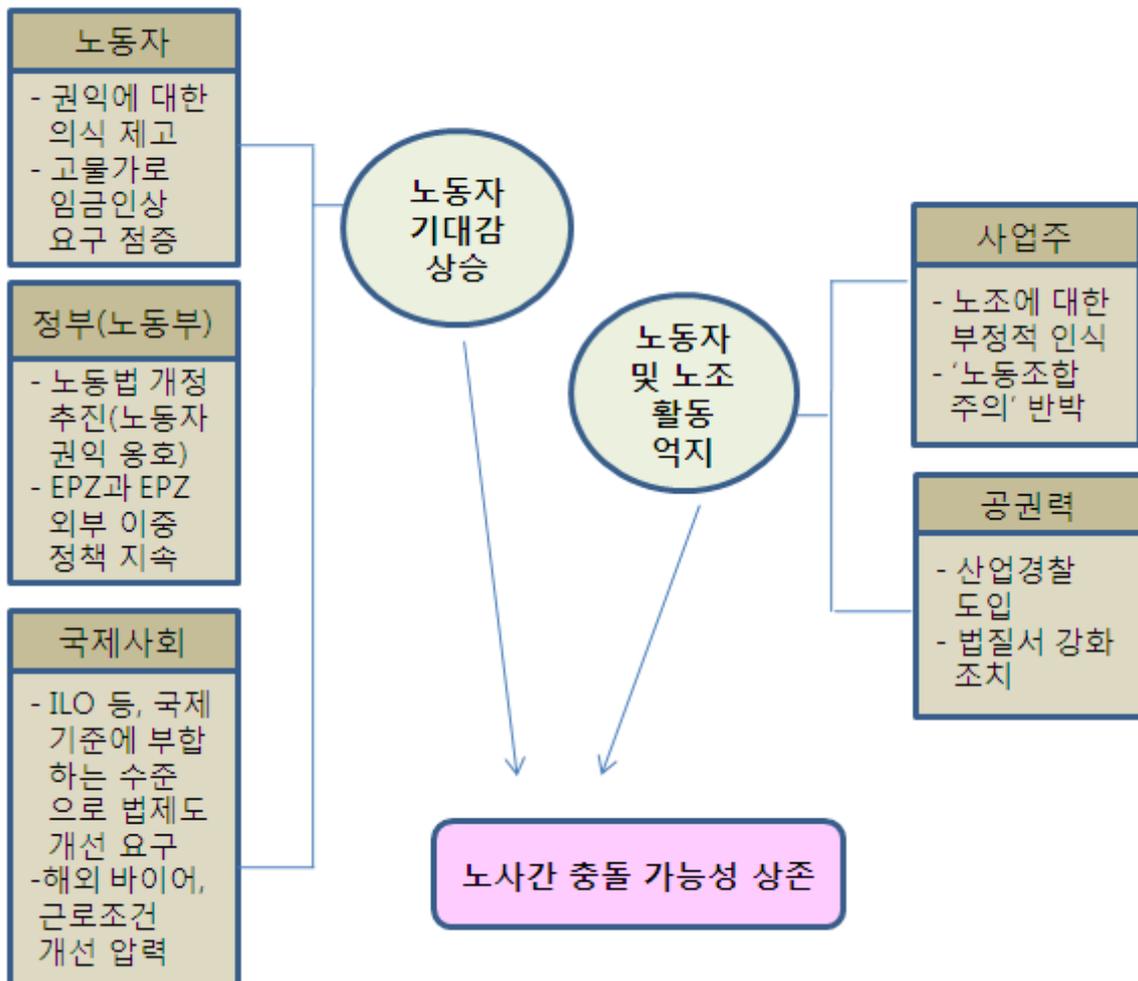
- 글로벌 바이어에 산재보상 강화 요구
 - 최근 현지 의류 제조업체와 노동자 단체가 손잡고 세계적인 의류 바이어들에 대해 조업 중 사망·부상 노동자를 위한 보상기금을 설립해 달라고 요청
 - 이같은 요구는 지난해 12월 대형 의류업체 Ha-Meem사에서 발생한 화재사고 등에 기인
 - 11층 건물 Ha-Meem 공장 화재로 29명이 희생되었는데, 목격자들에 의하면 건물 내 비상구가 모두 잠겨 있었다고 함. 이 사건은 화재 안전과 노동자 보상 문제에 대한 주의를 환기하는 계기가 됨

□ 정부당국, 법질서 준수 강조

- ‘산업경찰(Industrial Police)’ 제도 도입(2010년 10월 말)
 - 방글라데시 정부는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노사분규의 원만한 해결과 외국인 투자자 안전보호가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기업체 안전보호를 전담할 경찰청 산하 특별조직을 신설
 - 주된 임무는 노사분규시 조정자 역할, 노동자 불법폭력 시위 진압, 기업체내 각종 범죄사건 해결 등임
 - 2011년 8월 기준, 산업체가 밀집한 아술리아(경찰력 600명), 가지푸르(565명), 나라얀간즈(500명), 치타공(520명) 등 4개 지역에 지부를 운영중이며 향후 3,000명까지 증원 계획
- 불법 폭력시위에 대한 강력한 대처
 - 지난해 12월, 치타공EPZ 인근에서 발생한 대형시위에 대해 경찰이 30여명을 체포하는 등 강력한 진압의지 표출

라. 향후 노사관계 전망

- 노동자의 권익 증대 요구 분출
 - 사회·경제 발전에 따른 일반 노동자의 의식 제고와 국제사회의 압력 등이 그 요인
 - 최근의 물가급등 추세는 임금 상승 압박요인으로 작용
- 반면 사업주의 노조에 대한 인식 변화는 없어서 갈등 증폭 가능성 존재



IV

우리 기업의 대응방향

가. 단기적 대응방향

□ 현지 노동법규 준수는 기본중의 기본

- 현지 노동법규를 지키지 않으면서 노사평화를 바랄 수는 없음
- 노동법(BLA 2006)이 금년 말 개정 예정이므로 변화된 내용에 대한 숙지 필요

□ 경찰 등 공권력과의 긴밀한 관계 유지

- 방글라데시는 전반적으로 법질서에 대한 인식이 낮고, 경찰의 대응이 느리므로 유사시에 대비하여 경찰과 긴밀한 관계 유지가 필수
 - 2011년 7월 초, 우리 공관 주최로 산업경찰 고위관계자와 한국 진출기업 간 간담회를 개최하고 향후 협력방안 논의
- 2010년 10월 발족한 산업경찰(IP)은 노사평화 유지를 위한 특별 조직으로 기동성이 좋고, 기업에 대한 협조의지도 높아 활용도 제고 필요
 - 지부가 설치된 아슬리아 등 4개 지역은 우리 기업이 가장 많이 진출한 곳

□ 외부 세력의 산업현장 침투 방지

- 노동운동 NGO 등 외부세력이 시위를 유발하는 사례가 많은 바, 이러한 세력의 공장내 침투방지 대책 마련 필요
 - 지난해 12월 폭력시위가 발생한 영원무역도 배후에 외부세력이 있었다고 발표
- 요주의 인물 및 노동자에 대한 블랙리스트 작성, 공유시 유용

□ 임금인상 요구에 대한 대처

- 최근 고 인플레이션(식품가격 상승률이 공식통계로도 11%대)로 생계비가 급등함에 따라 노동자들의 임금인상 요구가 거세질 것
- 방글라데시는 경쟁국 대비 노동생산성이 낮으므로, 임금을 노동생산성 증가율과 연계해 노동자들의 근로의욕을 고취하는 것이 바람직함
- 또한 기업 차원에서 직원 교육훈련을 확대하고 이를 홍보해야 하며, 나아가 투자가협의회 등 단체 명의로 현지 정부에 노동자 직업훈련소 설치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 강화를 건의할 필요가 있음

나. 중장기적 대응방향

□ 노동조합의 일반화를 가정한 노사관계 정립

- 향후 수출·가공공단 내외를 막론하고 노조가 일반화된다는 가정하에 노사관계를 계획하고 정립해나가는 함
- 중국 등 선발개도국에 진출했던 우리 기업의 노사관계 우수사례(Best Practice)와 대응방향을 벤치마킹

□ CSR 활동 등을 통해 '좋은 기업' 이미지 구축

- 조그만 것부터라도 사회봉사 등 CSR 활동을 적극 수행하여 현지 커뮤니티에 기여하는 기업이란 이미지를 구축해가는 것이 바람직

□ 종합적인 해외진출전략 수립

- 단순히 저임금만을 노린 투자진출은 실패 가능성이 높으므로 노동력 수준, 노사관계 상황을 비롯하여 인프라 구비, 원부자재 조달 가능성 등 현지 상황이 자사 여건에 적합한지를 종합 검토해야 함. = 끝 =

2011년 KOTRA 발간자료 목록

□ GBR (Global Business Report)

번호	제목	발간일자
11-001	Check it~! 2011년 해외시장 이렇게 달라진다	2011.1
11-002	한-미 FTA 발효에 대한 美 바이어, 현지 진출 한국기업 및 투자가 반응 조사	2011.1
11-003	남부 수단 독립 진전 현황 및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	2011.2
11-004	美 바이어가 뽑은 한-미 FTA 10대 수출유망품목 및 진출전략	2011.2
11-005	월드컵 특수, 카타르 인프라 프로젝트 시장동향	2011.3
11-006	위기의 리비아, 대체시장을 잡아라	2011.3
11-007	일본 · 인도 CEPA체결의 파급효과와 현지반응	2011.3
11-008	금융위기 이후 중남미 시장 트렌드 1편(멕시코, 브라질편)	2011.3
11-009	금융위기 이후 중남미 시장 트렌드 2편(칠레, 아르헨티나, 콜롬비아편)	2011.3
11-010	동 · 서남아 주요국의 노무여건 변화와 진출기업의 대응 방향	2011.4
11-011	한-페루 FTA 수출유망상품 및 진출방안	2011.3
11-012	일본 대지진 발생 한달 -일본 산업계 복구현황과 대일 수출입 영향-	2011.4
11-013	우리기업의 對인도 투자 트렌드 변화	2011.4
11-014	요르단 물 부족 실태, 정부대책 및 우리 기업 참여 방안	2011.4
11-015	히트상품을 통해 본 일본 소비시장 동향	2011.4
11-016	베트남 유통시장 현황과 진출전략	2011.4
11-017	한-EU FTA로 날개 달 중소기업 50大 수출유망상품	2011.5
11-018	미국 가상상품 시장, 이제 시작이다	2011.5
11-019	키워드로 본 2011년 글로벌 소비트렌드	2011.5
11-020	민주화 사태 이후, 중동 바이어가 전망하는 新 중동 시장	2011.5
11-021	아프리카 표준인증제도 현황 및 의미	2011.5
11-022	일본 지진 이후 식품시장 현황	2011.5
11-023	MENA 민주화 사태 150일, 시장 변화와 전망	2011.6
11-024	요르단 전력산업 현황 및 우리 기업(정부) 진출 전략	2011.6
11-025	인도 인플레이션에 따른 투자진출비용변화	2011.6
11-026	한-EU FTA 최대 수혜주, 자동차부품시장을 잡아라!	2011.6

11-027	아프리카 지역내 창업여건 및 유망분야	2011.6
11-028	한-아세안 FTA 체결이후 수출유망품목의 수출동향	2011.6
11-029	美 기업 클라우드소싱 확산과 국내업체 시사점	2011.7
11-030	남수단 독립에 따른 비즈니스 환경변화 및 진출방안	2011.7
11-031	요르단 재생에너지 개발 현황 및 우리 기업 참여 방안	2011.7
11-032	한미 FTA로 날개 달 중소기업 35大 수출유망상품	2011.8
11-033	태국 정부조달시장 분야별 진출방안	2011.9
11-034	한-미 FTA 발효 이후, 미국 주요 자동차부품 바이어 대한수입 확대 계획	2011.10
11-035	해외 실버상품 마케팅 성공사례	2011.10

□ GIR (Global Issue Report)

번호	제목	발간일자
11-001	최근 對韓 수입규제 동향과 2011 전망	2011.1
11-002	Post 무바라크 이집트 경제동향 및 전망	2011.2
11-003	한미 FTA에 따른 美 정부조달시장 진출 기대효과 전망	2011.2
11-004	선진국의 환경규제와 기업의 대응사례	2011.4
11-005	2011 美 USTR 무역장벽보고서 주요내용과 시사점	2011.4
11-006	남유럽 재정위기 1년, 현재 유럽은?	2011.5
11-007	팍스 시니카, 한국의 기회와 위협	2011.5
11-008	소버린리스크 이후 세계시장 동향 및 수출여건 분석	2011.9
11-009	국가브랜드와 한류 현황 파악 조사	2011.10

□ KEB (KOTRA Executive Brief)

번호	제목	발간일자
11-001	2011년 1분기 KOTRA-SERI 수출선행지수	2011.1
11-002	이집트 反정부 시위가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	2011.1
11-003	해외바이어들이 전망하는 최근 이집트사태가 각국 경제 및 우리나라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	2011.2
11-004	이집트사태에 따른 우리기업 피해내역	2011.2
11-005	이집트 사태가 중동과 우리기업에게 미친 영향	2011.2
11-006	중동 북아 사태에 따른 세계경제영향과 향후전망	2011.3
11-007	일본 지진사태가 주요국의 산업에 미친 영향	2011.3

11-008	2011년 2분기 KOTRA-SERI 수출선행지수	2011.3
11-009	Post 중동민주화, 중동진출 새 활로 된다	2011.4
11-010	시리아 민주화 사태에 따른 우리기업의 유의사항	2011.4
11-011	일본기업의 생산거점 이전 현황조사	2011.6
11-012	해외시장에서 바라본 2011 하반기 수출 전망	2011.6
11-013	2011년 3분기 KOTRA-SERI 수출선행지수	2011.6
11-014	한-EU FTA 발효 한 달, 현장에서 본 수출확대 효과	2011.7
11-015	최근 인도 투자진출기업의 조세리스크 증가와 대응	2011.8
11-016	재정위기 여파 속, 미국 경제현황 점검	2011.8
11-017	미얀마 현지화 강세가 우리기업에 미치는 영향	2011.8
11-018	포스트 카다피, 리비아 시장 전망	2011.9
11-019	2011년 4분기 KOTRA-SERI 수출선행지수	2011.9
11-020	2011년 4/4분기 수출시장동향 점검	2011.9
11-021	일본 엔고와 대일 교역환경 변화	2011.9
11-022	방글라데시 노무여건 변화와 대응	2011.10
11-023	태국 홍수로 인한 일본기업 피해 현황	2011.11

□ KOCHI자료

번호	제목	발간일자
11-001	위안화 무역결제 확대에 따른 우리기업의 동향 및 전망	2011.3
11-002	세수(稅收)로 보는 2011 중국경제	2011.3
11-003	중국 고속철도 시대와 新소비지도	2011.3
11-004	中國 소비, Code로 잡는다	2011.5
11-005	中, 위안화 대폭 평가절상 가능성은?	2011.5
11-006	ECFA 체결 1주년 점검, 중-대만기업 설문조사	2011.6
11-007	中 숨겨진 마켓, 신흥 거점도시가 뜬다	2011.7
11-008	ECFA, 우리기업에게 득인가, 실인가? (ECFA 체결 1주년 점검)	2011.7
11-009	中 노무관리 비상! 이것이 해법이다!!	2011.8
11-010	외국인의 중국 사회보험 가입 의무화, 우리 기업의 영향과 대책	2011.10

□ 외국인투자정책센터자료

번호	제목	발간일자
11-001	한-EU FTA 발효에 따른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전략	2011.1
11-002	일본 『아시아 거점화 추진전략』 조사 및 시사점 분석	2011.5
11-003	러시아의 해외투자 동향 및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정책 과제	2011.6

□ FDI 현안리포트

번호	제목	발간일자
11-001	World Investment Report 2011 번역 요약본	2011.7

□ KOTRA자료

번호	제목	발간일자
11-001	2011 지역별 진출전략	2011.1
11-002	MDB를 통한 해외 정보통신시장 진출전략	2011.1
11-003	스마트 TV 플랫폼 및 콘텐츠의 해외진출 방안	2011.1
11-004	SW 글로벌 마켓 클릭	2011.1
11-005	외국인투자기업, 한국과 통하다 - 대표 외국인투자 성공사례	2011.2
11-006	중국의 성시별 해외투자정책 연구	2011.3
11-007	중국의 금융지도	2011.3
11-008	주력품목별 수출시장 전망 및 확대 방안	2011.2
11-009	2010년 해외 고급인력 수요조사 결과보고서	2011.3
11-010	필리핀 노동법 핵심번역본	2011.3
11-011	GUIDE TO BUSINESS ESTABLISHMENT IN KOREA	2011.3
11-012	GUIDE TO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KOREA	2011.3
11-013	Partnering for the Better Future - 30 Success Stories of Foreign-Invested Companies	2011.3
11-014	KOTRA 공동물류센터의 중장기 발전 방안	2011.3
11-015	세계 이리닝 전략지도	2011.4
11-016	그린리포트(Vol 11. 2011 Spring)	2011.4
11-017	주요 7개국 M&A 동향 조사	2011.4
11-018	韓國投資指南与企業經營信息 (한국 투자가이드 및 기업경영정보)	2011.5
11-019	300개 외투기업 주요경영지표 분석	2011.5

11-020	국내주요기관의 해외네트워크 2011	2011.5
11-021	'10년 해외주요국 투자동향	2011.5
11-022	韓國投資ガイドおよび企業經營情報 (한국투자가이드 및 기업경영정보)	2011.5
11-023	외국인직접투자와 해외직접투자의 연계성과 국제투자정책	2011.5
11-024	브라질 투자실무가이드	2011.6
11-025	SEOUL FOOD 2011 결과보고서	2011.6
11-026	EU 조달시장 진출가이드	2011.6
11-027	자동차분야 투자유치 위한 주요경쟁국 투자환경조사	2011.7
11-028	글로벌 ODA, 성공 DNA를 찾아라	2011.7
11-029	2011년 1분기 해외 FDI 동향	2011.7
11-030	2011년 하반기 외국인직접투자전망	2011.7
11-031	신규 외투기업을 위한 노동법 가이드	2011.7
11-032	Labor Law Guide for Starting Foreign-invested Enterprises	2011.7
11-033	2010년 북한의 대외무역동향	2011.7
11-034	2010 외국인투자옴부즈만 연차보고서	2011.7
11-035	Foreing Investment Ombudsman Annual Report 2010	2011.7
11-036	그린리포트(Vol 12. 2011 Summer)	2011.8
11-037	인도네시아 투자실무가이드 (개정판)	2011.8
11-038	일본 자동차 부품 MAP	2011.8
11-039	2010년도 Invest KOREA 연차보고서	2011.9
11-040	Green Hub Korea 2011 결과보고서	2011.9
11-041	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	2011.10
11-042	외국인투자 현금지원제도 개선방안 연구	2011.10
11-043	캄보디아 투자실무가이드 (개정판)	2011.10
11-044	IT해외진출 전략품목 - 스마트 디바이스	2011.10
11-045	IT해외진출 전략품목 - 로봇	2011.10
11-046	IT해외진출 전략품목 - 디지털방송	2011.10
11-047	IT해외진출 전략품목 - 시스템반도체	2011.10
11-048	IT해외진출 전략품목 - 3D	2011.10
11-049	IT해외진출 전략품목 - Telematics	2011.10
11-050	IT해외진출 전략품목 - RFID	2011.10
11-051	IT해외진출 전략품목 - Security	2011.10
11-052	2012 해외진출종합가이드	2011.10

11-053	미국 정부조달시장 진출가이드	2011.10
11-054	2011년 상반기 해외 FDI 동향	2011.11
11-055	국제개발은행 시장진출 안내	2011.11

□ 설명회자료

번호	제목	발간일자
11-001	2011 KOTRA 글로벌마켓 포럼	2011.1
11-002	2011 친디아 포럼	2011.1
11-003	글로벌 SW진출전략 워크샵	2011.1
11-004	2011 KOTRA 해외 공공조달 포럼	2011.1
11-005	2011 아프리카 포럼	2011.1
11-006	한-EU/한-미 FTA 기회와 도전 설명회	2011.1
11-007	2011 프랜차이즈 해외진출 포럼	2011.1
11-008	Dow Chemical Global Alliance Project Series	2011.1
11-009	Global IT Channel Vision 2011 (대형 IT유통사 초청 구매전략 설명회)	2011.2
11-010	글로벌 인재유치 및 활용전략 세미나	2011.2
11-011	중동·북아프리카 시장 긴급점검 설명회	2011.3
11-012	2011 글로벌 공공병원 기자재 조달플라자	2011.4
11-013	브라질 월드컵 프로젝트 설명회	2011.4
11-014	러시아 사하공화국 대통령 경제사절단 설명회	2011.4
11-015	2011 춘계 글로벌 파워텍 연계 세미나	2011.5
11-016	해외투자전략심포지움	2011.5
11-017	중국 신홍 유통기업 초청 구매전략 설명회	2011.5
11-018	제 1회 아프리카 비즈니스 트렌드 포럼	2011.6
11-019	한-대만 산업자원 협력 포럼	2011.6
11-020	Alstom Grid사 초청 구매정책 설명회	2011.7
11-021	주요 신홍시장 기술협력 유망산업 설명회	2011.6
11-022	중국 미개척시장(우루무치, 난닝) 진출전략 설명회	2011.7
11-023	중남미 의약품 진출전략 설명회	2011.7
11-024	2011 인도 권역별 진출전략 설명회	2011.8
11-025	Technology Cooperation with Korea - German Delegation - (한독기술협력사절단 설명회)	2011.8
11-026	FTA Business Week 2011 시장진출 설명회	2011.9
11-027	FTA Business Week 2011 유통망/자동차 부품 설명회	2011.9

11-028	UN조달 종합 설명회	2011.9
11-029	'외국인의 중국 사회보험 가입의무화' 관련 긴급 세미나	2011.10
11-030	9th Global Alliance Project : BASF-GAPS Launching Conference	2011.10
11-031	중국 프로젝트 시장진출 설명회	2011.10
11-032	인도 인프라시장 진출전략 설명회	2011.10
11-033	중국시장을 여는 필수열쇠, 인증제도 설명회	2011.10
11-034	제 8회 외국인투자 전문가포럼	2011.10
11-035	GAPS-PLUS Launching Conference	2011.11
11-036	2012 신흥시장 메가 트렌드 컨퍼런스	2011.11
11-037	Building Strategic Relationship with Korea - 2011 Joint Local Government Investment Conference -	2011.11

Kotra Exective Brief 11-022

방글라데시 노무여건 변화와 대응

발행인 | 홍석우
편집인 | 박진형
발행처 | KOTRA
발행일 | 2011년 11월 10일
주소 |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13
| (우 137-749)
전화 | 02) 3460-7114(대표)
홈페이지 | www.kotra.or.kr

Copyright © 2011 by KOTRA. All rights reserved.

이 책의 저작권은 KOTRA에 있습니다.

저작권법에 의해 한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
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.